

힘든 세상 왜 살아, 하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싫은 것 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아시나요, 세상은 보는 대로 보인다는 것을.
산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거기 산이 있다는 사실을.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세계골관절염연구학회 회장 자격으로 심포지엄 주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는 스페인 류마티스학회와 세계 골관절염연구학회(SER-OARS)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세계 골관절염연구학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개회사 및 연제 발표를 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의 라코루냐에서 열렸으며 '무릎관절 골관절염의 바이오마커와 정밀의학'의 주제로 전 세계 26명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2일간 열띤 토론을 벌여 골관절염의 조기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균일 교수는 2022년부터 세계골관절염연구학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본 학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도록 유치한 바 있다.



동국대학교의료원·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 아미타불교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과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지는 6월 2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직영 요양병원인 아미타불교요양병원 발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아미타불교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의료 및 전문 인력 운영·홍보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한, 조계종 스님과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직원·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료비 감면, 종합검진 감면 및 진료 편의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 스님은 "오늘 협약을 통해 승려복지 활동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승려복지 활성화를 목표로 동국대학교의료원과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채석래 의료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님들에게 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은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의료지원 및 기금, 홍보부스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와 백담사 등에서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전 일정에 참여하여 의료 지원 및 기금·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세계 30여 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과 참가자 약 3,000여 명의 안전을 위해 23일 개막식부터 낙산사 회향 시까지 응급환자 의료지원과 기금모연,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의료지원에는 낮은 환경에 적응중인 외국 스님들의 의료지원부스 방문이 많아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여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1987년 인도 부다가야에서 '여성수행자들'의 주제로 처음 개최되었고, 한국은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8차 대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었다.



재가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정서적 재활을 돕는 방문 진료 봉사 시행

재활의학과 이호준 교수와 서민수 전공의는 6월 28일 일산동구 보건소와 함께 일산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봉사는 장애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방법 교육과 낙상예방을 위한 조언, 평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이호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방문 진료 봉사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재가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유지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사업실에서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로 퇴원하는 환자들 중 일상 생활이 어렵고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보건소로 연계하고, 재활 의학과 의료진은 병원 처치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방문 진료 등을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2023년 통증캠페인 실시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암성 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의 주제로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통증',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N행시 공모전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통증캠페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N행시 공모전 최우수상에는 호스피스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이예지 내과 전공의가 수상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자비의료실천,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후원 문의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

발전기금 기부자

기간 ▶ 2023. 6. 1. ~ 6. 30.

206명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법보선원(용화선원)	100,000,000
익명의 불자님	29,300,000
박덕선	6,000,000
지홍스님	3,000,000
각광스님	1,000,000
운문사 사리암	1,000,000
이우섭	1,000,000
외 199명	(단위 : 원)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